# 제주 폐유리병 처리 내년 사업 중단 위기

## 타지역 제병업체 경영난… 미선별품 반입 중단 통보
## 도내 업체 연 6000t 수거… 수거량·단가 하락 부담
## "처리비 인상·시설 투자 부담, 공장 설립도 어려워"

제주에서 수거되는 폐유리병 처리가 내년부터 중단 위기에 몰렸다. 도내 폐유리병으로 새 유리병을 만드는 타지역의 제병업체가 재고 적체와 경영 악화로 제주에서 폐유리병을 수거·공급하는 한라공병에 미선별 폐유리병 반입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한라공병은 도내에서 연간 6000t 안팎의 폐유리병을 수거해 세 가지 색상으로 분류해 타지역 업체에 납품해 왔다.

하지만 제병업체의 유리병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고 파유리 단가가 하락하면서 폐유리병 처리업체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올해 직원 70명을 감축했고, 용해로 3기 가운데 1기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의 폐유리병 수거량도 감소세다.

1일 한라공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수거량은 2022년 7755t, 2023년 7153t, 2024년 6552t, 2025년 6287t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4613t을 기록 중이다. 특히 올해 수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t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미선별품 반입 계약이 해지되면 내년부터 해당 물량의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라공병은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시 회천동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을 새로 갖추는 데 약 25억원이 필요해 투자 부담이 큰 실정이다.

처리업체의 처리비 인상도 과제다. 현재 처리비는 ㎏당 제주시 100원, 서귀포시 65원, 매립장 55원이다. 서귀포시는 처리업체와의 거리가 멀어 매입업체와 운반업체에서의 수집·운반처리 비용(㎏당 90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구조다. 제주시와 동일한 100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답보 상태다.

이에 한라공병은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 120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라공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적자가 이어져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판로까지 막혔다"며 "행정차원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적자가 더 늘어 내년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국가인권위원장 국정감사 발언 논란

## 안창호 위원장 "배후설 역사적 고증 필요"
## 4·3단체 "참담한 역사인식… 공식 사과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주4·3과 관련해 이른바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4·3 관련 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북한과 관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매년 4월 3일을 전후해 제주에서 '김일성이 일으킨 북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같은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군 또는 김일성이 관여했다는 게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들어있냐"고 재차 물었다. 안 위원장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역사적인 고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4·3 특별법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같은 현수막들이 계속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3단체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극우유튜버' 수준의 참담한 역사인식"이라며 "나아가 4·3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처사로 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4·3단체는 "안 위원장은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행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 회복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위 지사·도의회, '4·3 김일성 배후설' 사과 촉구

## "명예 훼손 시도 용납 못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주4·3 김일성 배후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즉각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30일 SNS를 통해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되며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위 지사는 이어 "제주4·3은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오랜 노력으로 진실을 밝혀온 역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명예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의회도 31일 입장문을 내고 "안창호 위원장의 제주4·3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국가의 공식 진상규명 성과를 흔들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상처를 준 발언"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위영석기자

# 20대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 농협 관리자들 공소청 송치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농협 관리·감독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농협 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9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소재 모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돼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그동안 농협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해왔으며, 이들에게 안전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농협 조합장과 작업안전 관리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대물을 기다리며…** 1일 제주시 삼양동 삼양포구 방파제에 많은 낚시인들이 찾아 대물을 기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업체서 암모니아 누출

## 응축기 압력 제거 과정서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수산물업체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 27분쯤 서귀포항 인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파이어라인을 설치하고 업체에 암모니아 작업 중지를 지시했다.

소방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내부 체류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가 검출됐으며, 모든 밸브를 차단하고 내부 환기를 실시했다.

가스 배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서귀포시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칠십리교부터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구간 차량 및 출입을 통제한다"고 안내했다.

가스 누출은 암모니아 설비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외부 응축기 연결 배관을 통해 압력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